

용산구,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자기돌봄비 사업참여자 접수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난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뒷전으로 미뤄야 했던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 서울시 자기돌봄비 사업의 일환이다.

지역 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모집인원은 서울시에서 총 330명이다.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와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과 청년을 이른다. 이번 사업은 돌봄 부담으로 인해 소홀해질 수 있는 자기

개발, 건강관리, 상담·치료, 문화활동 등 '나를 위한 돌봄'에 집중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 또한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5월부터 12월까지 최대 8개월간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돌봄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가족이 2인 이상으로 돌봄 부담이 큰 '고부담형'은 월 40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건강관리, 학업, 진로 등 미래준비나 간병비용 등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쓸 수 있다. 유희, 사행, 마사

지·사우나 등 위생, 면세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참여자는 두 달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서에는 자기돌봄비 사용 분야와 돌봄 부담 변화 등을 기록해 사업 효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복지포털 누리집(<http://wis.seoul.go.kr>)에서 가능하다. 9~13세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해 법정 대리인과 함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녹사평대로 150, 5층)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내달 1차 현장실사 등을 통한 1차 심사를 거친 후 내달 말경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 통보·교육은 5월 중 이뤄진다.

서초구, 공공 셔틀버스 전 노선 초정밀 실시간 위치안내 제공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23일부터 'AI 특구버스'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에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도입해 서초구가 운영하는 공공 셔틀버스 전 노선에서 초정밀 실시간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AI 특구버스는 서초AICT 우수기업 센터와 양재AI특구 일대에서 근무하는 AI 기업 종사자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 오전 6시 45분부터 오후 11시까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와 복지관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평일 오전 8시 3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운행되

고 있는 공공 셔틀버스다.

이번 23일부터는 AI 특구버스와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셔틀버스에도 해당 서비스를 정식 운영함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 셔틀버스 전 노선에서 실시간 위치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에 적용된 RTK(Real-Time Kinematic) 기술은 기존 GPS 대비 오차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인 초정밀 위치 측정 방식으로, cm 단위의 실시간 위치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버스 도착 시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 불필

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이동 편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은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웹사이트인 '서초 공공 셔틀버스' 웹 페이지와 '서초 스마트시티 앱'에 접속하면 주민 누구나 셔틀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 셔틀버스 운행 정보가 한 곳으로 통합되면서 노선별로 분산돼 있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필요 시 노선 간 환승도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관악구, 서울대 미술대학과 함께 '제14기 창의예술영재' 키운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과 함께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관악창의예술영재 교육원'의 제14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2013년부터 총 614명의 수료생(사회적배려대상자 포함)을 배출한 '관악창의예술영재교육원'은 미술에 대한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학생을 발굴하고 차세대 미래예술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관악구와 서울대 미술대학이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서울대학교 전문 교수진과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인문학·사회

과학·예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단순히 미술 교육을 넘어 협동심과 인성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화예술 활동, 실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심도 있는 창의영재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교육과정은 5월~10월까지 미술 창작활동, 문화복합시설을 견학하는 현장체험학습이 진행되며, 방학 기간에는 집중 심화 학습 및 협업 활동을 위한 여름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기초반과 심화

반의 통합 운영이다. 구는 이를 통해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우르는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예술적 재능을 가진 인재로 조기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서울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내 청소년들이 미래 예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2026회 파주시의회 임기회 정책대안공청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의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

서울시민·아미 함께 즐긴 BTS 공연서 안전 역량 확인

10만4천 명 운집에도 체계적 인파관리와 철저한 안전대책 가동으로 안전사고 '0건'

현장인력 8200여명 배치, 시설물·맨홀 등 선제적 점검 및 조치... 빈틈없는 안전체계 가동



치 상태까지 합동 점검하며 재차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지하철 환기구(78개)와 역사 출입구 캐노피(47개) 등 82개 지점에 추락 방지 울타리를 설치한 결과 당일 현장에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관광재단 '움직이는 안내소' 관광통역안내사 68명과 자원봉사 안내·통역 550명은 외국인 관광객을 담당했다. 시는 누리집에 'BTS 컴백공연 중합 안내' 메뉴를 신설해 교통·안전·편의 시설 등 필수 정보를 제공했다. 조회 수는 약 28만5000여건이었다.

시는 다음 달 19일까지 하이브의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프로그램에 더해 한강, DDP 등 서울 명소를 중심으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간다.

2026 서울스프링페스티벌(4월 10일~5월 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뮤직라이프쇼(4월 6~12일), K팝 성지 도보관광코스(3월 19일부터), 서울스테이 라운지(3월 20일~4월 12일) 등을 운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공연은 아티스트 컴백 무대를 넘어 서울과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고 글로벌 문화 발전지로서의 위상을 높여 서울을 확고부동한 글로벌 톱 5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장성 기자

전 세계 '아미'와 서울시민이 하나가 되어 즐긴 글로벌 빅쇼 '방탄소년단 컴백공연'이 안전과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K팝과 K컬처 파워를 다시 한번 확실히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매력 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알리는 기회가 됐다

21일(토) 방탄소년단 컴백 공연에 주최측 추산 10만 4천여 명의 인파가 현장을 찾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계기관의 체계적인 인파 관리와 성숙한 관람 문화 속에 행사를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과 도심에 무대로 한 대규모 공연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연이 결장된 직후인 2월 4일 오세훈 시장 주재 점검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및 주최 측과 협력해 안전관리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가동했다고 덧붙였다.

시장 주재 2회, 행정·2부시장 주재 5회 등 총 7차례의 점검회의를 통해 안전·교통·인파·편의·의료 분야 준비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고, 주최 측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점검·보완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갔다.

공연 이틀 전인 19일(목)에는 오시장이 관계기관, 주최측과 광화문 일대를 직접 찾아 무대 주변부터 지하철 출입구, 동선 분리를 위한 안전 펜스 설

온라인몰·지하철역 등에 파는 '저가 수입빵' 안전성 검사

해외직구 젤리·사탕 등 마약류 검사,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 및 기구 안전성 확인도

최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으로 긴 데다 일명 '천원빵'이라 불리며 빠르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저가 수입산 빵류에 대한 식품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를 수거해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사하고 해외직구 식품과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 수입식품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역사 등을 통해 수입산 빵류가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데다 소비기한도 매우 길어 안전성 여부, 유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한 시민 우려도 함께 높이고 있어 기획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3.16(월)~3.27(금)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온라인 쇼핑몰, 지하철역사, 대형마트, 편의점,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산 저가 빵류 총 7백여 개 시료를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진행한다.

소비기한이 긴 빵류는 보존료(방부제) 과다 사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프로피온산칼슘 등 주요 보존료 기준 준수 여부와 허용되는 성분 외 타르색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검사 결과, 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폐기토록 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방침이다.

는 또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 식

품 등에 대한 검사도 단계적으로 확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젤리, 사탕 등 형태로 유통된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다음 달까지 해외직구 젤리, 사탕, 과자, 햄프씨드 오일 등을 수거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검사는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CBD(칸나비디올)를 비롯해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총 10종으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검사한다.

시는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영·유아용 식기 등 식품용 기구와 용기를 수거해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 초과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

이장성 기자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올해 총 256억 투입

어린이집 10곳 중 7곳 "4번 이상 대체인력 썼다"...보육현장의 고마움 '보육구조대'

"어린이집 선생님님 감사하죠?", "조리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직접 아이들 밥을 하고 있어요. 몸이 아파도 휴가는 언감생심이죠." 이처럼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조리원이 휴가나 경조사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는 일은 보육현장의 큰 어려움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보육교사와 조리원의 휴가로 인한 부재시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추진, 보육공백 최소화해 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 대체교사 지원(직접 채용 인건비 지원)을 시작했으며, 2009년에는 대체교사 파견 지원을, 2017년에는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을 각각 시작해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체교사 파견 37,111건 ▲대체조리원 파견 2,590건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해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 24,012건을 지원해 휴가·교육·질병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는 현장의 공백

을 보완했다.

현장의 만족도도 높았다. 지난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대체인력 지원을 4회 이상 활용했다고 답할 만큼 필수적인 제도로 안착했다. 교사들은 "무료로 안심하고 교육과 연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환호했고, 응답자의 59%는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서울시는 올해 총 256억 원을 투입해 보다 촘촘해진 '어린이집 대체교사·대체조리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보육현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대체조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대체인력 파견과 인건비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보육교사와 달리, 어린이집 조리원은 대체조리원 파견 지원만 이뤄졌다. 그러나 어린이집이 원하는 날짜와 대체인력 파견이 가능한 날짜가 맞지 않거나, 별도 조리원 없이 원장이 직접 급식을 준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시는 대체인력 파견과 인건비를 동시에 지원함으로써 조리원이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현장에서의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교직원에게는 휴식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대체조리원 신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과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https://iseoul.seoul.go.kr>)에서 할 수 있다. 먼저 대체교사·대체조리원 파견 신청을 하고, 파견 지원이 어려운 경우엔 어린이집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마재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육교직원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보육환경으로 이어진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